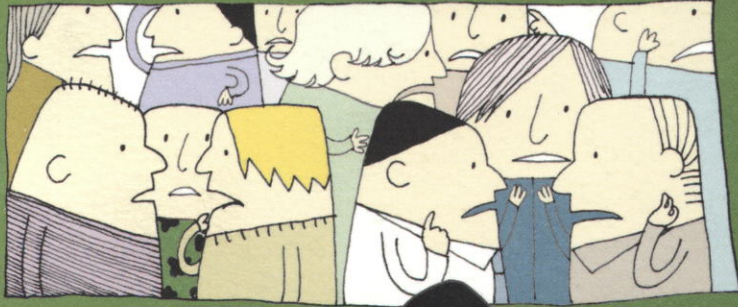


성폭력 근절, 남성도 뚝다!

| 남성들을 위한 성폭력 근절 가이드 북 |



남성들을 위한
성폭력 근절 가이드 북을 발간하며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입니다.

본 상담소는 성폭력 없는 살맛 나는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지난 13년 동안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간 성폭력생존자들을 만나오면서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은, 성폭력이 여성의 일상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성폭력으로 인한 영향 또한 일회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 침투하여 여성의 삶을 제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폭력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의식과 제도 개선, 특히 남성의 변화없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문제가 여성의 일상전반에 지속적으로 관여되고 있다는 점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의 변화 역시 상징적이거나 단회의 성찰에 그쳐서는 안되며 남성의 일상 전반에서 변화를 위한 꾸준한 실천이 요구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본 상담소에서는, 남성 스스로 자기 경험들을 성찰하고 스스로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해 낼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책자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없지만, 많은 고민거리들이 숨어있습니다. 한숨 고르고 글을 따라 생각을 가다듬다 보면, 관계와 나에 대한 성찰들로 한결 좋은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6 성폭력 근절, 남성도 된다!

09 성폭력 바로알기

10 성폭력이란?

13 숫자로 보는 성폭력

16 편견 바로잡기

22 Self- Check! / 당신의 성폭력 지수 알아보기

25 변화를 위한 가이드

27 하나. 평등의식 키우기

남자도 마찬가지?

: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 및 공동체에서/ Guide

여자도 마찬가지!

: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 및 공동체에서/ Guide

41 둘. 진솔하게 나를 묻기

나는?

: 주변의 요구/ 내가 생각하는 나/ 남자란...?/ Guide

그녀(그)에게 나는?

: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관계 속에서의 폭력성/ 성적 관계에서/ Guide

우리 안에서 나는?

: 학교에서/ 직장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Guide

61 셋. 변화에 참여하기

나로부터 시작하기

: 남성다움에 따지를 걸재/ 솔직하고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자!

너와 함께 살기

: 남자친구들과/ 여자친구들과/ 연인인 여성과/ 성적관계에서

우리가 변화하기

: 학교에서/ 직장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직장 및 공동체에서

성폭력 근절, 남성도 뚝다!

남성들을 위한 성폭력 근절 가이드 북



78 당신이라면?

83 어떻게 할까요?

84 피해자의 친구인 당신

88 가해자의 친구인 당신

93 가해자인 당신

96 피해자인 당신

100 이럴땐 이렇게 해봐요!

21 쉬어가며 생각하기 1

33 쉬어가며 생각하기 2

39 쉬어가며 생각하기 3

47 쉬어가며 생각하기 4

65 쉬어가며 생각하기 5

성폭력 근절, 남성도 뚫다!



성폭력에 대해 분노하는 많은 남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남성을 만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성폭력 문제는 남성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성폭력 없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남성들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몇몇 나쁜 놈들의 이야기다.” / “나는 (성폭력)하지 않는다.”

성폭력은 나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나 여러분도 모르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폭력적인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의미있는 이들이 성폭력 피해 생존자로서 여러분의 지원과 지지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천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나를 가해자 취급하지 말아라.” / “모든 남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모든 남자들을 가해자로 취급하는 듯해서 불편하다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주세요.
남성들 역시 성폭력에 반대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변화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천과 참여, 보다 멋진 당신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굳이 왜 그래야(변화하고자 노력해야) 하는가?”

“여자들을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

많은 남성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변화해야 하는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들의 노력이, 남성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반문합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들의 실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남성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익숙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변화시킬 때 오는 불편함이 크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성숙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계에 대한 진정한 욕구들이 무엇인지 알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과 욕구, 이해들을 보다 솔직하고, 배려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소통할 줄 아는 ‘성숙하고 주체적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게라도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
잠재적 가해집단으로서가 아니라, 성폭력 근절을 위한 평등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
무엇보다도, 보다 성숙하고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
성폭력 없는 살맛 나는 세상 만들기에 함께해주세요!!!

성폭력, 바로 알기!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우.스. 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뭐가 성폭력인지 아직 혼란스러운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개념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을 옆에 모아 보았습니다.



성폭력, 알쏭달쏭한 것들 !

» 상대도 동의했는걸요?

성폭력 가해자들 대부분이, 자신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상대 역시 동의 하에 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 상대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 상대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물어 동의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러한 의미였다” (“상대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는 식의 해석은 결국, 상대의 의사를 내가 미루어 해석하거나 판단한 것이지, 결코 상대의 의사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성적 행동이나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대의 의사와 동의를 직접 명확하게 구해야만 합니다.

» 의도적으로 그렇게 아니었는걸요?

많은 가해자들이 문제의 행동이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소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는가 여부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행위가 성폭력인지 아닌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소에 상대방 및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 성적인 신체접촉을 한 것도 아닌데 성폭력일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이라고 하면, 강제적인 성기삽입 즉, 강간만을 떠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성기삽입이 아닐 경우, 그 상황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폭력이란 비단 강간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인 모든 종류의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더불어 문제의 행동이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충분히 성적인 불쾌감이나 정신적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신체적인 접촉이나 강간 피해 등과 마찬가지로 후유증을 수반합니다.

➤ 단 1회의 불쾌한 성적 행동도 성폭력일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물리적인 성폭력이 아닌, 언어적·정신적으로 가해진 성폭력의 경우, 문제의 행동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 아니었다면, 그 행동은 성폭력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 1회라 할지라도 상대가 그 행동과 상황을 불쾌하게 느꼈다면 그것은 성폭력이라 보아야 합니다. 단 1회였다 하더라도 상대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한 행동 및 생활상의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횡수에 상관없이 어떠한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폭력적인 느낌을 주었다면 이를 성폭력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숫자로 보는 성폭력



여성의 일상과 성폭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198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강간 신고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이 신고율로 실제 강간 발생건수를 추산해 볼 때,

- 한해에 몇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82만건
 - 하루에 몇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877건
 - 한시간에 몇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37건
 - 3분에 몇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2건
- (*위에서의 발생건수는 강간범죄에 한해 추정된 것입니다.)

|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90)를 보면,

● 가벼운 추행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76.4%
● 심한 추행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23.7%
● 성적 희롱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48.6%
● 성기노출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74.5%
● 강간미수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14.1%
● 강간 피해가 있는 경우	7.7%
● 어린이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6.5%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2001, 한국성폭력상담소)

| 성폭력 피해 중에, 아는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77%

| 아는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 피해 중,

●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11.0%
● 동네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	10.7%
● 직장상사와 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22.2%
● 데이트 상대에 의한 성폭력 피해	6.3%
● 동급생, 선후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5.1%
● 교사, 강사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2.8%
● 성직자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1.2%

친족 성폭력 피해 실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2001, 한국성폭력상담소)

전체 성폭력 중 친족성폭력은 얼마나 될까요?	11%
어린이 성폭력 피해 중 친족 성폭력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23%
친족 성폭력 중 친부, 의부, 형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86%
친족 성폭력 피해자 중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얼마나 될까요?	83%

대학내 성폭력 피해 실태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 2001, 한국성폭력상담소)

| 대학내 성폭력 피해 중,

● 교수 및 강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30%
● 선배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37%
● 동기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23%
●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3%

그 밖의 성폭력 피해 실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2001,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얼마나 될까요?	6.1%
전체 성폭력 피해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 성폭력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19.9%
전체 성폭력 범죄 중 직장내 성폭력은 얼마나 될까요?	20.2%

편견바로잡기



여전히 성폭력에 관한 편견들이 완고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성폭력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단지 생각으로서만이 아니라, 여성과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강화시킴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들입니다.

아래에 주어진 편견들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몰랐던 것들에 대해,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폭력은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화된 우리사회의 폭력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문화 및 관행들 속에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든 누구에 의해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강간범들은 칼이나 주먹을 사용한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보다 심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흉기로 위협을 하고 강간을 한 경우를 특수강간이라고 하는데 특수강간의 비율이 일반강간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이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고, 그리고 그 성충동이 절대로 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즉각적이고 우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많은 경우, 아는 사람에 의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연구들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억제된 분노 등을 자신보다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표출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의 원인으로 돌려지고 있는 '성충동' 역시,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성욕은 참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 받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곡된 성인식과 여성관, 그리고 약자에 대한 폭력의 무감함이 성폭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욕이 강하다?

개개인마다 성욕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것이 남녀에 따라 구별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않습니다. 더불어 어떤 것을 성적인 욕구로서 느끼는가 하는 것도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자에 비해 남자의 성욕이 보다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자의 성욕이 더 강하다는 말은 언뜻 보면 단지 여성과 남성을 비교한 것일 뿐, 성폭력과는 무관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실

제로는 성욕을 폭력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편견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은 젊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난다?

흔히, 젊은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폭력을 '성욕을 충동적으로 해소하는 것' 이라 보고, 그 대상을 우리사회에서 주로 성적으로 대상화되기 쉬운 20대 여성일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편견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폭력은 가해자의 권력을 폭력적으로 풀어내는 것과 밀접해 있고, 그 대상도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 30%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고, 20% 정도가 13~19세의 미성년자입니다. 또한 생후 만 4개월의 아기부터 70세 이상의 노인까지 성폭력은 나이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사회적 약자인 남자 어린이, 남자 청소년 등 소수의 남성도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강간을 유발한다?

노출이 심한 여름에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성폭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아무리 짧은 반바지와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성적인 대상이나 성폭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아프리카에서는 가슴을 노출했다는 것이 성폭력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이 강간을 유발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통념입니다.

여자들은 강간당하기를 바란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도 사실 강간당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폭력 가해자들 중 피해자인 여성이 강간당하기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통념은 성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는 아무리 사소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도 피해여성들은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간과 같은 폭력행위, 그로 인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피해여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보다 피해자에게 저항의 책임을 묻고,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것으로, 다른 범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상입니다.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극도의 공포로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저항보다는 오히려 무력해지기가 쉽습니다. 폭력적 상황에 대한 맥락을 이해한다면, 피해여성에게 대해 저항여부도 동의의사를 판단하려하고, 극단적인 저항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근히 강간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법을 평소에 학습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위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저항하지 않는 것을 은근히 강간 당하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된 태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즐기기도 한다?

포르노에서나 잘못된 대중매체에서는 여성이 강간을 당하여 괴로워 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즐기는 것처럼 그려지는 장면을 흔하게 등장시킵니다. 그러한 왜곡된 대중매체를 접하다 보면 처음에는 성폭력 피해에 저항하더라도 나중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되는 것이 여성의 본성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생존자는 결코 피해 상황을 '즐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에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인 힘에 눌려 자포자기하게 되면서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피해자를 이중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성폭력은 낯선 관계에서만 발생한다?

성폭력이 주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

을 강간과 같은 협소한 개념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을 성관계로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폭력이 모르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방식 및 관행 그리고 왜곡된 성인식들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여성과의 성적 행동은 성폭력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성관계를 가진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어떠한 관계였는가와 상관없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동이 가해졌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데이트에 응하여 집까지 따라간 여성은 성폭력을 당해도 할말이 없다?

데이트를 하는 관계에서도 성폭력은 발생합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방의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곧 성행위를 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집에 따라간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상대방이 성행위를 원치 않아서 거절할 때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강제력을 동원한측에게 책임이 묻어져야 합니다. 특히 데이트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훈련을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부부사이에는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다?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흔히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개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회풍조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성폭력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에서든 신체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서적 측면에서 불평등한 권력이 개입되었다면 성폭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1

만약 당신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성이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당신을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Question 2

상황을 바꿔, 만일 당신보다 훨씬 체격이 크고, 당신보다 상급자(선배 등)인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남성들이 1번처럼 물을 때, “나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쁘면 더 좋겠다” 등으로 답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 2번 질문으로 바꿔 물어보게 되면, 남성들의 답은 정반대로 바뀌어 돌아옵니다.

이는 많은 남성들이 성폭력을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권력을 기반으로, 여성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으로서가 아니라 ‘성 관계’로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Self-Check!

“내 안의
성폭력 지수”

알아보기.
살고 바꾸어 버리자!



아래의 질문들은 생각하기도 싫지만, 당신도 모르게 갖고 있을지 모르는 성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Self-Check를 하는 목적은, 얼마나 많은 정답을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솔직하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찬찬히 돌아보며 답해 주세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상당히 걱정하세요. 나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출발이고, 실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01 아내, 애인 등에게는 배려하고자 하나, 보통의 여성들에게는 그럴 필요를 많이 못 느낀다.
- 02 괜찮은 남자란, 여성을 보호하고 챙겨주는 남자라고 생각한다.
- 03 화가 나거나 괴롭고 힘들 때, 이러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 04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자는 성관계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 05 성관계에서 남자가 리드해야 한다.
- 06 키스나 성적인 접촉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동의를 직접 물어보는 것은 창피하고, 무드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07 성폭력 피해 중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08 밤에 여관이나 집에 따라 왔다는 것은 사실 섹스를 허락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 09 성경험이 많음을 자랑하는 친구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

- 10 섹스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여성은, 솔직히 성관계 경험이 많은 여자라고 생각한다.
- 11 여자들은 은근히 터프하고 거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 12 사귀고 싶은 여성이 싫다고 말한다 해도, 꾸준히 나의 애정을 전달함으로써 사랑을 얻어내는 것도 낭만이고 순정이라고 생각한다.
- 13 여자들을 잘 이해할 수 없다. 여자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 14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대상에게 이를 직접 표현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풀이를 할 때가 있다.
- 15 자신보다 나를 더 배려하고, 내 말을 믿고 따라와 주고, 내가 존경할 수 있기보다는 나를 존경해주는 여성이 좋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준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THE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CHEMISTRY

PH.D. THESIS

BY

ROBERT M. HARRIS

IN

PHYSICAL CHEMISTRY



변화를 위한 가이드



성폭력 근절에 동참하고자 하는 멋진 당신!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신 안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성폭력 문제를 당신의 삶과 어떻게 관련시킬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 소개되어질 가이드를 따라,

당신과 당신의 의미있는 관계들 그리고

소중한 공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주어진 일상 속의 작은 실천 방법들 중,

당신이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일상 속에서 찬찬히 시도해 보세요.

성폭력 없는 살맛 나는 세상, 평등한 세상은,

지금 길지 않은 이 돌아봄의 시간 속에서

당신이 만들어 갈 고민과 작은 실천들을 통해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 의미있는 출발을, 지금! 해 보시겠어요?

하나!

평 등의 식 키 우 기



상대와 나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할 때,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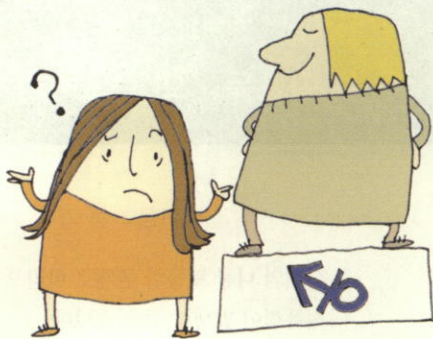
어떤 남성들은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성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차별들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존재합니다.

또 어떤 남성들은 '여성은 남성과 다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성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의 욕구와 권리를 가진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 놓여진 차별들에 대해 먼저 알고,
상대가 나와 마찬가지로의 욕구를 가진
존중되어야 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진정한 평등의식일 것입니다.

우리 안의 평등의식을 키워 나갈 때,
성폭력 없는 살맛 나는 세상은 보다 가까워 질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적 조건과 상황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평등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나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문항들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남성도 여성도 마찬가지인가요?



- | 여자들은 마음대로 외박도 못해
 - | 여자들은 마음대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기 힘들어
- | 여자들은 혼자서 자유롭게 여행도 못 가
 - | 여자들은 마음대로 담배도 피우지 못해
- | 여자들은 화장실에 맨날 줄 서서 기다려야 해
(남자화장실 칸 수는 훨씬 많아. 세상엔 여자가 훨씬 많은데 말이지)
 - | 혼자 사는 여자는 이웃들의 이상한 시선을 감수해야 해
- | 여자들은 지하철에서 성추행에 시달려
 - | 여자들은 항상 날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
- | 큰 사이즈의 여성 옷은 아예 팔지도 않아
 - | 여자들은 아무리 늦어도 화장을 해야 해
(화장을 하지 않으면 게으르거나 '여자답지 못해' 라고 생각해)
- | 여자들은 큰소리로 말하거나 웃는 것도 눈치보여
('여자답지 못해' 라고 당장 구박을 들어.)
 - | 여자들은 고집부려야 할 때 고집부려도 걱정을 들어
('여자가 팔자가 드세서 어쩌나' 하는 걱정이 쏟아지니.)
- | 여자에게는 대출도 안 해줘
 - | 주부는 신용카드도 못만들어
- | 여자에겐 사람들이 쉽게 반말해
 - | 여자가 밥이나 짓지 차 끌고 나왔다는 소리를 들어
- | 첫손님이 여자라 채수없다고 거부당하기가 일쑤야



| 주위 눈치에 떠밀려 결혼을 억지로 고민해야 해

(남자는 능력있으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지만, 여자는 능력있어도 나이가 들어 늙으면 결혼 못한다고 등을 떠밀지)

| 취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결혼하면 되잖아' 라는 소리를 들어

| 여자가 공부는 뭐 하러 하느냐는 소리를 들어

| 여자는 급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 저녁을 차려드리러 가야 하는데, 남동생이나 오빠는 놀다 와도 돼

| 결혼을 하면 남의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하고 명절도 남의 친척들과 보내야 해

| 명절에 일은 여자들이 다해야 해

| 맞벌이를 해도 집안일은 여자들이 해야 해

| 여자는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어도 문제야

| 여자는 남편보다 직급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더 인정 받아도 문제야

| 아이를 기르는 건 모두 여자 책임이야

| 사내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을 받아

| 남동생과 통금시간이 달라



| 여자들이 공격적으로 말하면 감정적이라고 지적을 받아

(남자들이 공격적으로 말하면 저돌적이라고 하지.)

| 여자들은 결혼했다고 해고되기도 해

| 여자들만 유니폼을 입게 해

(여직원만 유니폼을 입게 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 같은 일을 해도 여자들은 돈을 훨씬 덜 받아

| 똑똑한 여자는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고 불평을 들어

| 중요한 자리에 여자가 올라가는 아주 힘들어

| 직장에서 여성의 선발기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모야

| 육아를 위한 시간을 내려고 하면 그래서 여자는 안된다는 소리를 듣지

| 여성은 술하게 성희롱을 당해

| 여자들을 끼워주지 않는 남자들끼리의 정보 네트워크가 있어

(남자들끼리만 있는 술자리에서 일과 관련된 이야기나 정보들을 교환하곤 해.)

| 생일 챙기기, 회식장소 예약, 기타 사무 잡무는 은근히 모두 여자에게 돌아가

| 취업이나 좋은 기회는 여자후배가 아닌 남자후배에게 먼저 주어져

| 능력을 인정받아 상사나 리더가 되어도 부하직원들이 불신하거나, 혹은 여자 상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어떠세요?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인가요?

'여자들이 어떻게...' '여자인가...'라는 전제들을 가지고 주어지는 차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오직 성별적 차이에 의해 규정짓고,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생각과 말들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다름과 차이'를 언급하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로 나타납니다.

'차별'이란 서로 간의 '차이와 다름'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모두 존중하지 않고, 차이를 서열화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더욱이 여성에 대한 차별적 기대 및 요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바라보고, 동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태도들이 만연해 있을 때, 여성의 권리와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들이 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들은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비교: 남과 여

인터넷 게시판에 떠도는 글들의 일부입니다. 조금은 과장 섞인 대비이지만, 당신이 남성들과의 맺는 관계방식과 소통방식을 알아보는 재미있는 글입니다. 자신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손 잡고 걸어갈 때

여자&여자 :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친근감 있어 보인다. 친한 친구들처럼..보인다.

남자&남자 : 한번도 못 봤다. -- 있다 해도 웬지 이상해 보인다--

호칭

여자' s : 친구끼리 서로 "소영", "희진", "영자"라고 이름을 불러준다.

남자' s : 친구끼리 이름이 길수,정남,영철이면,
서로 "달 대가리", "X같은XX", "멀대"라고 불러준다.

수다

여자' s : 여자들끼리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시작하면,
사전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동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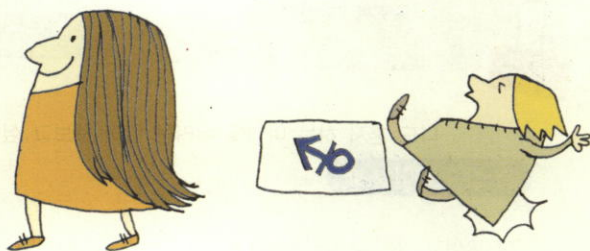
남자' s : 남자들끼리 저녁을 함께 하며 얘기를 할 때는 20개 정도의
낱말이면 족하다. "소금 좀 줘", "맥주 더 마실래?" 등등

눈 오는 거리를 걸을 때

여자&여자 : 조심해.엎어질라..나 붙잡아.

남자&남자 : 절루 떨어져 임마~ 같이 엎어지구 싫냐? --++

여성도 마찬가지?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지만,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동일한 욕구와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욕구와 권리들은,
여성 또한 자연스럽게 욕구하고,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권리들입니다.

다음의 질문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또한 동일하게 느끼는 욕구들과 당연한 권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문항들을 살펴보세요..
꼼꼼히 살펴보고 돌아보는 만큼, 이해가 늘어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죠?



| 가끔은 귀가 시간에 구애 없이,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오래 나누고 싶어

| 나도 혼자 하는 여행을 두려움 없이 해보고 싶어

| 나도 위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히치 하이킹을 해보고 싶어

| 이웃을 귀찮아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살고 싶어

| 나이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 어디로든 마음대로 가고 싶어

| 옷에 내 몸을 맞추는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옷을 사 입고 싶어

| 흡연 장소에서 담배 피우는데, 누가 나를 눈치주거나 때리는 것은 정말 화나

| 큰소리로 웃고 싶을 때, 큰소리로 마음껏 웃고 떠들고 싶어

| 바쁘거나 혹은 하고싶지 않을 땐, 억지로 화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 성추행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전철을 타고 싶어

| 나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줄 사람을 구해 놓아야 한다는 부담 없이, 가끔 술에 취하고 싶을 땐 마음 편하게 취하고 싶어

| 외모에 대한 평가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 지원을 받지는 않더라도, 내가 학비를 벌어 공부하려고 할 때, 가족들이 지지해 주었으면 좋겠어

| 나의 직업에 대한 기대들이, 결혼 이외의 부가적 선택 정도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진지하게 존중되고 인정 되었으면 좋겠어

| 집안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식구들이 같이 살면서 만들어지는 일인데. 집안일을 '도와준다'가 아니라 '같이' 했으면 해

| 아이는 부부 두 사람의 아이라구. 아이 문제를 다 내 탓으로 돌리지 말았으면 해. 양육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할 몫이라구

| 나도 명절날 내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

| 모두 함께 지내는 명절인데, 다같이 일을 나눠 했으면 좋겠어. 나도 친척들과 오랜만에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가지고 싶다구

|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기도 힘든데, 남편 기죽을까 봐 눈치까지 보는 건 싫어

| '여자는 00살 넘으면 껌값'이라는 말을 내 소중한 식구들로부터 들어야하다니 너무 비참해. 정말 인간으로서 대우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 내 성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 |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 | 외모말고 실력으로 인정 받고 싶어
- | 결혼과 무관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 | 내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 받고 싶어
- | 똑같이 일하고 노력한 만큼, 같은 임금을 받았으면 좋겠어
- | 직장내 정보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외되는 건 기분 나빠
- | 일하는데 오히려 불편한 유니폼은 입고 싶지 않아
- | 경력이 있음에도 나이 30이 넘었다는 이유로 재취업을 거부 당하는 것은 화가 나
- | 아이와 직장 모두 나에게는 중요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시간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 받았으면 좋겠어
- | 나는 일하러 온거지 상사나 남자동료들 기분 맞추러 온 게 아니야
- | 업무 이외의 것들(예약, 청소, 생일 챙기기 등)에 신경쓰지 않고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
- |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반말하는 건 기분 나빠

어디까지요?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죠?

만일 앞의 내용들을 남성인 당신의 이야기로 읽어본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욕구하고 있는 바이거나, 혹은 이미 당연하게 주어져 왔던 까닭에 이를 굳이 요구하거나 주장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들일 것입니다.

혹시 여자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남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되고 주어지는 권리들이 왜 여성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박탈되어야 하는 것이 되는지 찬찬히 물어보고 생각해주시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낸 답은 혹시 다시 '여성이므로...'라는 꼬리말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자가 밤늦게 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는 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밤늦게 다니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일까요? 그것은 여자들의 책임일까요? 왜 우리는 위험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여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걸까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언제 어디든 자유롭게 어딘가를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서 밤길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권리를 박탈 시킨 것은 누구인가요?)

뚜렷한 이유 없이 남성인 당신에게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여성들에게 박탈되어 있다면, 앞에 나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인정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상호적인 성관계와 성폭력 간의 차이 : 동의란?

성폭력과 상호적인 성관계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동의다.

... 진석은 혜진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혜진이 아직은 싫다고 답했습니다. 진석은 혜진을 강제로 성폭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진석은 “너와 자고 싶어.” “오늘도 안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 정도면 나 많이 기다린거 아니냐?”며 혜진과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결국 진석의 지속적인 요구를 무시하기 힘든 마음에 진석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

진석은 분명 혜진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그러나 이 때의 관계가 결코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상호적 성관계라 말할 수는 없다.

위의 상황에서 혜진은 진석과의 성관계를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동의’했다기 보다, 진석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 압박 속에서 내려진 선택이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동의의 진정한 개념은, 단지 상대의 ‘그래’라는 말을 얻어냄으로써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압력이나 부담도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의 욕구가 일치했을 때 내려진 상호간의 합의를 말한다.

돌!

진솔하게 나를 묻기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성폭력과 나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을 발생 가능하게 하는 우리사회의 문화는,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익숙한 생각과 습관 속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과 기대,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나, 공동체 속에서의 나를
진솔하게 묻고 돌아보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진솔하게 물어보세요.

성폭력 없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는 ?



나는 '남자답다' 는 말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남자답다' 라는 말들로 표현되는 태도들 중 많은 것들이, 상대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적인 태도들을 요구하고 또한 이를 당연한 것으로 만듭니다.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노출되는 이러한 기대와 요구들로부터 어느 남성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기대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될 때, 상대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의도치 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우리사회가 '남자답다' 라는 말로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억압적인 기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만히 물어보세요.

나는 이러한 요구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 지금보다 더 "터프해져야 한다"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모임에서 강하고 주도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 성적 능력을 과시해야 할 것 같은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

| 겁쟁이, 동성애자, 범생이, 여자 같은 녀석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 목소리가 작다고 혼이 난 적이 있다

| 시비 걸기를 즐기지는 않지만, 나한테 도전해 오는 사람들을 피하지는 않는다

| 힘이 약하다고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

| 남자는 운동도 가리지 않고 잘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 소심하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 인간관계가 폭 넓지 못하다고 지적받은 적이 있다



- | 나는 일에서 성공하는 것을 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
- | 나는 감정적이기 보다는 이성적이기를 바란다
- | 나는 고통스러워도 내색하지 않는다
- | 나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 | 나는 과중한 일도 서슴없이 한다
- | 나는 남 앞에서 걱정거리를 늘어놓지 않는다
- | 나는 약해보이는 것이 싫다
- | 나는 거칠어 보이고 싶다
- | 나는 "여자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다
- | 나는 힘든 감정을 숨기고 태연한 척하려고 애쓴 적이 있다
- | 나는 남자답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부러 여성을 비하하거나 추근거린 적이 있다
- | 나는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 가족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 | 주장을 굽혀서는 안 된다
- | 항상 자부심이 강해야 한다
- | 사소한 일에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
- | 경우에 따라서 주먹을 쓸 수 있어야 한다
- | 육체적으로 강해야 한다
- | 모험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 | 요리나 바느질을 하는 남자는 매력이 없다
- | 간호사, 보모 등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 파마, 액세서리 등 치장하는 남자는 보기 흉하다
- |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 근육질의 몸매를 가져야 한다
- | 다방면에 풍부한 상식을 가져야 한다
- |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논쟁도 할 줄 알아야 한다
- | 술을 잘 마셔야 한다

어디까지요?

질문에 비추면
나의 모습은?

그 동안 당신은 '사내녀석이 어떻게...', '남자답게...'라는 말들을 아마도 꽤 많이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요구'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기대들에 반영되고, '남자란' 어때야 한다는, 일반화된 기대와 요구로서 고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와 생각들은 개인의 다양한 가능성과 차이들을 무시하고, 오직 성차에 의해 규정된 태도와 모습들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자신 그리고 다른 남성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욕구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더욱이 남성다움이란 말들 속에 주어지는 이상적인 남성상은, 감정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발산을 억압하는 것, 육체적인 강함,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솔직함을 감추는 것 등을 이상화 시킨다는 점에서 우리의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남성다움이 여성적인 것에 대한 비난과 폭력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제까지 자연스럽게 듣고 수용해왔던 남성다움에 대한 기대들을 성찰하여 수용하지 않으면, 여성에 대한 비하와 성적 폭력의 가능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잠재해 있게 됩니다.

나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충실하고, 타인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기 위해 그리고 (의도치 않은 순간이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능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 남성다움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말들에 대해 낮설게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자의 이상형 : 그 환상과 현실의 간극

한 게시판에 올라 온 한 남자의 이상형에 대한 글과 그에 대한 한 여자의 답변 중 일부입니다. 연애를 할 때나 관계를 맺을 때 성역할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독단적이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욕구를 읽고, 권리를 존중해주고 같이 소통을 통해 쌓아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남자의 이상형) Re: 여자의 답변

- **밥 먹은 후에 차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얘기해 주는 여자**
 >> 얘기는 혼자하는게 아니다. 호응이 있어야 한다.
-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 전화해 상의하는 여자**
 >> 여자 혼자도 해결 할 수 있다. 상의를 원하기 전에 공감이라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
-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는 주관이 뚜렷한 여자**
 >> 그럼 지지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왜 남들처럼 '드센 여자'로 보나..
- **내가 무엇이든 도전할 때 내게 용기를 주는 여자**
 >> 용기 주고 싶다. 그러나 그 전에 상의를 해줘야 용기를 줄 수있다.
- **하루라도 전화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여자**
 >> 그렇다면 전화해서 감정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밥 먹었어? 나 집에 들어가' 이 건 대화가 아니질 않나.
- **눈빛만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여자**
 >> 우리는 독심술사가 아니다. 원하고 알아주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전에 말을 해줘야 한다.
- **우정을 나누는 남자친구가 5명 이상 있는 탈탈한 여자**
 >> 정말? 질투 안 한다면 10명도 만들 수 있다.
- **힘들 때일 수록 힘이 되 주는 여자**
 >>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할 줄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독심술사가 아니라니깐.. —, —

그녀(그)에게 나는?



'그녀(그)의 감정과 의사를 충분히 존중' 하는 가운데 나의 감정과 의사를 나누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일상에는 타인의 감정과 의사를 일방적으로 추측하고 판단하며, 폭력적인 태도를 가버운 것으로 용인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나의 기대나 태도가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될 지 성찰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는 남성들의 관계방식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태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태도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잠시 한숨을 고르고 들여다보면,
지나쳐왔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 남자친구들과 일상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 남자친구들과 여자친구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 남자친구에게 애정을 담아 고마움을 표현해 본적이 별로 없다

| 고등학교 이후로 남자친구와 단둘이서 영화를 본 적이 없다

| 친한 친구일수록 욕을 많이 섞어 쓰는 것이 격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내밀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술을 먹지 않고도 그 앞에서 울 수 있는 남자친구는 거의 없다

|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을 멈추거나 하지 않은 적이 있다

| 남자친구와 친하다는 표시로 머리나 어깨 등을 때리곤 한다

| 남자친구와 둘만 남게 되면 어색해서 금방 자리를 정리한다

| 남자친구와 패밀리 레스토랑을 같이 가는 것은 돈이 아까운 일이다



| 남자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고, 여성들에게만 기대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서적 욕구가 있다

| 여성이 말을 할 때, 그녀가 말하는 내용보다는 그녀의 몸에 먼저 시선이 집중되었던 적이 있다

| 나는 혼성집단에 속해 있지만, 여성들과는 별로 교류가 없는 편이다

| 여자친구가 될 가능성이 없는 여성에게는 정도 이상으로 잘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애인이 있는 여자친구에게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다

|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일수록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성관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여자친구는 성에 대해 개방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 남녀가 단둘이 만나는 것은 심중팔구 연애를 하는 것이다



| 누군가에게 크게 소리를 질러 위협한 적이 있다

| 누군가를 때린 적이 있다

| 그녀(그)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힘으로 붙잡은 적이 있다

| 작게라도 분노나 화를 (화가 난 대상이 아닌)여성에게 툴 적이 있다

| 상대에게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물건을 발로 찬 적이 있다

|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다할 때까지 참을성있게 기다리기 힘들어서 끼어든 적이 있다

|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전화를 받기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화가 난다

|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거부 의사를 밝힌 그녀(그)에게 끈질기게 다가간 적이 있다



| 분명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다

| 여자친구에게 피임의 책임을 맡겨둔다

| 원하는 어떤 것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나 애인에게 고향을 지르거나 때리거나 혹은 자해를 한 적이 있다

| 같이 여관을 가거나 남자를 집에 초대하는 여자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섹스보다는 더 많은 애정을 원한다"는 말을 여자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다

| 거부의사를 밝힌 그녀(그)에게 끈질기게 구애를 한 적이 있다

| 삽입섹스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 여자친구만이 나의 유일한 이해자라고 생각하거나, 여자친구에게만 나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요?

질문에 비추어본
나의 관계방식이?

앞서 돌아본 남자다움에 대한 요구들은, 그녀(그)에 대한 나의 관계방식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억압 받아온 까닭에, 친밀함을 표현하는 남성들의 관계방식 중 많은 부분이 언어적·신체적·정서적 폭력들과 결합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방식이 여성에게 성찰 없이 행해질 때, 그것이 비록 정말 친밀함을 표현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상대에게는 폭력적인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인 소통과 이해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존재하는 까닭에, 관계 안에서 이러한 욕구와 실제적인 관계 사이에 채워지지 않는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남성들간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소통의 욕구는, 이러한 욕구를 여성들과의 관계에만 집중적으로 기대, 요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집중된 이러한 기대는 스토킹이나 폭력적인 관계 맺기로 발전되기 쉽습니다.

동시에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고, 끊임없이 성적으로 대상화시켜 내는 태도들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의사 소통의 한 방식인 성관계에서 이는 성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관계에 대한 나의 욕구와 기대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별에 따라 구별적인 관계적 기대 및 태도 방식들을 지양하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나의 다양한 욕구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안에서 나는?



'나 정도면 공동체 안에서 평등한 구성원' 일꺼야.....!?

공동체의 소중함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여성과 남성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배려와 존중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폭력을 조장하고, 묵인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다음에는 학교, 직장, 온라인 공동체 등에서 나타나는
남성들의 성문화를 담은 내용입니다.

진솔하게 나를 비춰보세요.
우리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왔는지?



| 수업 중 음담패설이나 성경험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스스럼없고 재미있게 수업할 줄 아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 연애하는 친구들의 성적인 진도를 묻거나 부추긴 적이 있다

| 많은 성경험을 자랑하는 친구녀석에게 은근한 부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

| 여자 선생님의 가슴을 보려고 하거나, 치마를 들춰보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혹은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를 부추기거나
은근한 호기심으로 동조한 적이 있다

| 여자들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품평한 적이 있다

| 음담패설을 많이 하는 친구를 보면서, 분위기를 띄울 줄 아는
녀석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 M.T나 O.T, 수련회 등에 가서, 남녀간의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게임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서로 친해지기 위한 게임일 뿐인데, 신체접촉을 불쾌해 하는 여자
애들을 보면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모르고, 분위기 깨는 녀석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 친구들과 지나가는 여자애들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장난을 쳐본 적이 있다

| 신입생이 들어오면, 그 중 예쁜 여자애들을 두고 친구들과
“니꺼”, “내꺼” 나는 적이 있다



| 직장에서 성적인 농담을 곧잘 하곤 한다

| 여자동료를 취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강권한 적이 있다

|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 술을 강권하거나 놀린 적이 있다

| 회식자리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남자직원과 여직원들이 섞여 앉자고 한 적이 있다

| 여직원의 연애나 성경험 여부 등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끌어 내서 춤을 춘 적이 있다

| 여자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혹은 여자가 따라주는 술을 마셔야 맛있다 등의 간접적인 요구를 한 적이 있다

|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

| 여자 동료나 직원에게 안마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한 행동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

| 여자 동료나 직원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오늘 그날이야?' 혹은 '어제 남편하고 밤에 안 좋았어?' 라는 식의 농담을 한 적이 있다



- | 여성들의 글은 편협하다고 생각한다
 - | 여자들은 사소한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 |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사용한 적이 있다
 - | 여성들이 주로 있는 공동체에서 나를 신경써주지 않는 것은 여자들이 편협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온라인 상에서 반말을 한 적이 있다
 - | 여자들은 남자들이 던지는 여성주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대략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 | 내가 남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여성주의에 대해 얘기할 때 여자들의 반응은 '가르치려 든다' 라는 것이다
 - | 재미로 성적인 단어들을 ID로 사용한 적이 있다
- | 여성 이슈로 논쟁이 붙었을 때, 무조건 남자들 편을 든 적이 있다
 - | 일단 상대방이 여자라는 사실을 밝히면 글이나 생각이 나보다 모자라다고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 | 온라인에서 만나는 여자들이 예쁜지 안 예쁜지가 가장 궁금하다
 - |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 소개나 성적인 비방 혹은 욕을 해 놓은 글은 꼭 들어가서 읽게 된다
- | 온라인 상에서 타인을 비방하고 성적인 모욕을 주는 경우들을 꽤 보지만, 그냥 그러려니 한다



- | 여성에 관해 비하하는 농담을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
- | 남자 친구나 동료들과 여성의 외모를 두고 놀리거나 비평한 적이 있다
- | 동료들과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은 적이 있다
- | 포르노 비디오나 책, 소설, 인터넷 사이트를 동료들과 돌려본 적이 있다
- | 공동체 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되어 가해자를 불쌍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혹은 좋게 해결하자며,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이해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 | 내가 속한 공간에서 여성들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별로 관심은 없다
- |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지목된 친구를 옹호한 적이 있다
- | 남자들끼리의 친밀함을 놀림거리로 삼은 적이 있다
- | 동료 중 누군가가 동성애자인가 아닌가를 두고 수군거린 적이 있다
- | 악이 없는 성적인 농담 혹은 음담패설은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 | 성희롱에 대한 문제점 중 하나는 일부 여성이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나의 모습은?

우리사회는 공동체의 결속과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가 자랑할만한 문화적 특징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결속과 조화가 구성원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므로써 만들어진 것일 때, 어떤 구성원들에게 이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에 대한 배려 없이 강요되는 공동체의 질서와 결속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이미 존재하는 성차별적 문화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들이 공동체의 질서에 적응해주기를 요구함으로써, 여성들의 실제적인 감정과 경험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을 똑같이 존중되어야 할 구성원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서만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사회의 공동체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인격적 존중 그리고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공동체의 결속과 조화는 그렇지 않은 공동체에 비해 보다 큰 힘과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배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차별적인 생각들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셋!

변화에 참여하기



보다 성숙하고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는 나를 위해,
의도하지 않게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타인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성폭력 근절에 동참하고자 하는 당신!

스스로가 먼저
일상에서의 작은 배려와 변화들을
시도하고 만들어가지 않는 한
성폭력은 근절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세번째 작업!
변화를 위해 실천하기!

나로부터 시작하기



나로부터 시작하는 성폭력 근절!

'남자다움'이라는 말로 요구되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나아가 타인에게도 폭력적일 수 있는 태도들에 반대하기!
그리고 우리 내면의 솔직한 감정들과 만나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실천들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비하적인 인식과 감정,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많은 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작은 실천 방법들을 읽고, 시작해 보기!

소소한 방법들이지만
실천할 수록 큰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 | 나의 몸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 | 나의 목소리가 굵고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 | 여성이나 연인 앞에서는 든든한 존재(보호해 주어야 한다)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기

 - | 성경험에 대해 집착하지 않기

- | 남자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부러 여자들을 비하하거나 치근덕거리지 않기 (친구들 앞에서 대범해 보이기 위해 길가는 여자들에게 휘파람 불거나 혹은 여자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일부러 해본다거나 등등)

 - | 자신이 힘을 기르고 근육을 키우는 목적에 대해서 질문해 보기

- | 나의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언제나 열어 놓고, 잘못했을 땐 인정하기

 - |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들은, 그것이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마음껏 즐기기

- | 걱정거리가 있을 때 조언을 구하기

 - | 억지로 몸에도 받지 않는 술을 부러 많이 마시려 하지 말기.
먹고 싶은 만큼만 먹기

- | 잘못을 인정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버리기

 - |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화내지 않기

- |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묻기
- | 책임질 자신이 정말 없을 땐 솔직하게 말하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거나 책임을 맡는 것을 사양하기. 남자가 책임감 없다고 비난할까 봐 신경쓰지 말기



| 나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기. 고통스러운만큼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드러내기

| 울고 싶을 땐,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울기

| 나의 고통이나 감정을 술의 힘 등을 빌어 표현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그 상태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드러내기

| 화가 났을 땐 왜 화가 났는지, 화가 난 대상에게 적절한 표현으로 설명하려 노력하기

| 걱정되고 불안할 땐, 부러 대범한척 하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이야기하기

|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세분화해보는 연습해 보기. 그리고 그에 맞는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해 보기

| 당신의 감정 표현 방법에 대해 적절한지 생각해보기.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은지) 물어보기. 비위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안 3가지 이상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기

| 여성에게 (자신의 행동 중에)무엇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물어보기

|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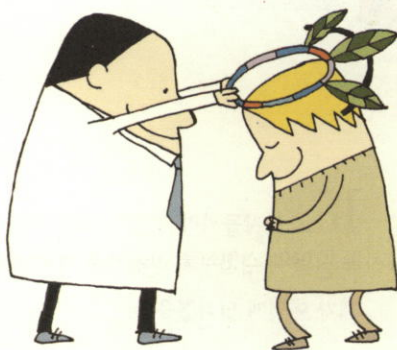
If... 남자들끼리 친밀한 표현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나누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혼란받지 않았다면, 다른 남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If... 사랑과 감동의 대상, 정서적 지지자의 대상으로 유일하게 여성을 상징하도록 혼련되지 않았다면, 여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If... “남자들끼리는 이래야 해”, “여자들끼리는 이래야 해”라는 생각들로부터 잠시 떠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내가 원하는 새로운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If... 내가 그런 관계들을 맺어나갈 때, 남자들의 폭력성 특히 여성에 대한 남자들의 폭력성은 변화가 있을까? 성폭력은 줄어들 수 있을까?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너와 함께 살기



관계에 대한 나의 기대, 태도가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성찰하기! .

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성폭력의 많은 부분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보다 충만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작은 실천 방법들을 읽고, 너와 함께 살아가기!

남자 친구들과, 여자 친구들과...
각각의 관계 안에서 즐거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 친하다는 표시로 욕을 섞어 말하거나 때리지 않기

| 친구에게 적절한 스킨십을 섞어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보기

| 남자들 사이의 스킨십을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놀리지 않기

| 친구에게 정치나 스포츠, 일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수다를 떨어보기

| 친구와 둘이만 있는 시간을 어색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두 사람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기

| 친구와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할 약속을 잡아보기

| 친구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적절한 말과 이벤트로 위로해주기

| 친구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 친구에게 힘든 일을 말하면서 별일 아닌 척 말하지 않기

| 친구의 힘든 일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애써 대범하게 대하거나 넘어가지 않기



- | 여자친구를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눠서 판단하지 않기
- | 연애를 하지 않고 여자친구와도 남자친구처럼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 | 흔히 수작을 건다고 표현되는, 연애상대를 대하는 태도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기
- | 남자와 여자 둘이서 자주 어울리는 것을 보고 연애를 한다고 수군거리고 놀리지 않기
- | 여자친구를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자기 삶의 중요한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 | 남자친구에게 그렇듯이 외모를 가지고 친구의 기준을 만들지 않기
- | 친밀한 감정을 가진다는 것과 섹슈얼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알고, 친한 관계일수록 각별히 언어와 행동을 조심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가기
- | 친한 친구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치근덕대거나 은근히 스킨십을 가져가는 식으로 친구로서의 감정을 해치고 불쾌하게 만들지 않기
- | 여자친구가 다른 성별과 다른 조건에 처해 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맞추어 놀고 함께하기.(ex:밤늦게까지 놀지 못하는 상황을 배려하기 등)
- | 남자친구에게서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감정적인 위로를 여자친구에게서만 구하지 않기



| 연인만이 유일한 감정소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 연인과의 성관계를 척도로 서로의 관계를 판단하려 하지 않기

| 연인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언어폭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땐 상의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기

| 특히 성적 관계에 있어서 항상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고 배려하기

| 연인이 고민을 이야기 할 때,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부담으로 '해결사'를 자처하기 이전에 연인의 감정에 먼저 공감해주기

| 연인과의 관계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고립되는 배타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 연인의 일과 활동을 존중하기. 연애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얘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꼭 관계의 척도는 아니라는 것 받아들이기

| 헤어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확인을 구하거나 자주 연락을 취하는 식으로 괴롭히지 않기



| 나의 성경험 횟수나 성관계를 가진 상대의 수보다는, 상대와 함께 서로 만족을 느꼈던 성관계를 가졌는가를 보다 소중하게 의미 부여하기

| 절대적으로 입을 열어 말한 내용 이상으로 미리 앞질러 가정하지 않기

| 나와 상대 둘 중 누구라도 만취해 있을 때는 성관계를 갖지 않기

|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한 이후에도 이를 계속 말이나 혹은 은근한 신체적 접촉들을 통해, 성관계에 대한 압박을 상대에게 주지 않기

|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성적 접촉이나 관계를 시도하지 않기

|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 친구 혹은 연인과 이야기 하기

| 성관계 전에 먼저 콘돔을 준비하고, 사용하기

|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상대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기

| 좋다가도 싫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기 (어떤 행동에 대한 느낌이 언제나 좋거나 언제나 싫거나 그런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

우리가 변화하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폭력 근절!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성문화와 폭력에 반대하기!

우리가 함께 변화하기 위한 이와 같은 실천들 속에서
성폭력을 조장하는 성문화의 개선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제시된 작은 실천 방법들을 읽고, 우리 함께 변화하기!
작은 파문들이 우리를 함께 변화하게 합니다.



| 선생님이 수업 중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음담패설들을 할 때 (그것이 수업 내용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한 것이든 혹은 지루함을 덜기 위한 의도이든간에), 문제제기 하기. 혹은 적어도 그런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말기 □

| 연애하는 남자 친구들에게, '손은 잡아봤어?' '키스는 해봤어?' '어디까지 갔어?' 라는 식의 질문이 아니라, 여자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감정과 이해들을 나누는지에 대해 물어보기 □

| 자신의 성경험과 상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자랑하는 친구가 있을 때, 그것이 폭력적인 행동임을 말해주기 □

| 친구가 성경험이 많이 있는 것처럼 혹은 성에 대해 많이 알고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무조건 대단하게 바라보지 말고, 인터넷이나 성교육 책자들을 통해 맞는 말인지 확인해 보기. 친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슬쩍 알려주기 □

| 성폭력적인 상황을 재미난 이야기인 양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것이 현실에서는 범죄에 해당함을 말해주기. □

| 친구들이 야설이나 포르노를 돌려보면서 포르노에 등장하는 여성과 상황에 대해 얘기할 때, 현실의 여성들과 상황은 결코 그러하지 않음을 말해주기. 더불어 그게 사실인줄 알고 여자들에게 그대로 했다가는 오히려 미움 받게 됨을 알려주기 □

|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나 비난을 할 때, 그러한 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며, 우리 안의 차이를 차별로 만들고 있는 것임을 말해주기 □

|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이나 여자 선생님 등의 신체 부위에 대한 품평 들을 할 때, 그것이 상대방을 비하하고 폭력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음을 알려주기 □

|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이나 여자 선생님의 치마를 들추거나, 부러 넘어뜨리거나 하는 등의 행위들을 할 때, 그것을 장난으로 생각하고 함께 동조하거나 즐기지 않기. 친구에게 경고해주기 □

|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기 □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 교육부와 여성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대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 해당 대학의 반성폭력학칙이 있는지 알아보고, 학칙에 의거 학내 성폭력사건을 지원 담당하고 있는 성희롱 상담실 등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 | 술을 마시러 가기 전에,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술과 차를 동시에 주문할 수 있는 곳을 가도록 제안하기
- | 술을 억지로 먹도록 강권하지 말고, 서로 먹고 싶은 만큼, 취하고 싶은 만큼 적당하게 마시며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기
- | 일과 관련된 이야기나 정보교환을 여성 동료들이 없는 자리에서 나누는 분위기일 때, 함께 일을 해가기 위해서는 여성 동료들에게도 그러한 정보들이 공유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여성 동료들과 나누려고 노력하기
- | 여성상사나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생리휴가 등을 사용할 때, '여자라서 좋겠다'는 말이나 '여자들과 일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특별한 배려인 것처럼 말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하기
- | 업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는 이유로, 성적 농담 등을 나누지 않기
- | 여자 동료들의 외모나 옷차림 등에 대해 평하지 않는다. 외모나 복장에 있어 서로 자유롭게 편한 직장 분위기가 되는데 노력하기
- | 여직원들을 잠재적인 연애대상이나, 성적인 대상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동료로서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기
- | 함께 자리할 때, 남자직원과 여자직원들이 섞여 앉도록 권하지 않기
- | 서로의 연애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두거나 간섭하지 않기
- | 사내에서 남자직원과 여직원이 연애를 하다 헤어졌을 때, 여직원을 이전에 사귀던 남자직원의 '애인이었던 사람'으로 바라보거나 그렇게 언급하며 이야기하지 않기



| 상대방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부러 확인하려 하지 말기

| 존칭 쓰기. 반말하지 말기

|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단어(예. 변태남, 변강쇠 등)를 아이디로 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놀아주지 말기

| 음란물을 알리거나 혹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성적인 욕설들을 담은 글은 확인한 순간 글의 성격을 리플로 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이런 리플이 달린 글은 절대로 조회 수 늘려주지 말기

| 게시판에 타인에 대한 성적 비방이나 욕설 등을 담은 내용을 올린 사람을 보았을 때, 즉각 신고하기

|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올려 놓은 글을 보았을 때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며 지나치지 말고, 해당 홈페이지사에 연락해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신고하기

|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해서 게시판에 도배하는 글을 보았을 때 일일이 답하지 말고, 조회수 '0'으로 무시하기

| 여성이슈를 두고 남자들이 게시판을 욕설과 비방으로 도배할 때, 남자들에게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글을 쓰거나 메일 보내기.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같은 남자로서 부끄러워짐을 이야기해 주기

| 상대방에서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쪽지나 메일 보내지 않기



| 지하철에 앉아 갈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더 편하게 앉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옆사람의 혹시 모를 불편함을 배려해서, 다리를 모아 앉기

| 여성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만들어가기

| 밤 늦은 시간에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혹시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이 있다면,
천천히 걸어간다. 만일 여성이 뒤에서 걸어오고 있다면 빨리 걸어가기. 이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라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공포를 덜어낼 수 있는 작은 실천!

| '여자' 가...라는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기

| 노상방뇨 하지 않기

| 앉아서 오줌누기

| 성차별적이거나 성폭력적인 상황을 희화화 시키는 드라마를 보면 해당 방송사
인터넷 사이트에 항의글 올리기

| 성차별적이거나, 성폭력적인 내용의 영화, 드라마 보지 않기. 보겠다는
사람 말리기

| 선거나 투표를 할 때, 해당 정치후보의 평소 성평등 인식정도와 여성정책에 대한
공약 내용을 중요하게 반영하기

| 평소에 성폭력 피해시 기본적인 대처방안 등을 알아 놓고, 주변에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알려주기

(여기에 들어가면 정보가!- <http://www.sisters.or.kr/>)

| 공동체 안에서 음담패설이 나누어질 때, 그러한 것이 분위기를 편안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장내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음을 이야기하기

|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인간적인 중재라는 이름 하에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이야기와 감정을 먼저 지지해주기

|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남성에게 여성스럽다 혹은 게이같다는 말을 할 때 혹은 어떤 여성에게 남자같다 또는 레즈비언같다는 말을 할때 성역할이나 성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하기

| 성매매에 반대하기

| 거리의 성매매업소(××방, ××주점) 광고 떼내기

| 여성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기

| 여성단체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사이트에 후원하기 혹은 기증하기

당신 이러면?

다음은
당신이 일상 속에서
언젠가 만날 수 있는,
혹은 이미 만나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했거나
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1 오랜만에 사람들과 모임을 하고, 뒷풀이 겸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사람들 분위기가 즐겁고 편하지 않습니다. 그때 분위기 메이커인 A선배가 "야, 다들 표정들이 왜 그러냐? 오랜만에 같이 술 마시는데, 이왕이면 즐겁게 마시자."고 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할테니 들어보라며 음담패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A선배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고,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며 즐거워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맞은편에 앉은 B여자선배의 표정은 더 무겁게 굳어진 듯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A 선배에게 B 선배가 불쾌해한다고 알려준다.
- ② 내가 아는 이야기가 있으면 나도 한다.
- ③ A 선배 및 그 자리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폭력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 ④ 옆 사람과 음담패설이 아닌,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눈다.

02 어느날 회사에서 고객을 접대할 일이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상사가 "오늘 00고객 접대하는 날이지? 얘기 잘해 봐. 잘 보이면 얻어낼게 많은 사람이야."라고 하며 지나갑니다

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관행상 그 고객접대로 저녁식사와 술자리는 기본이고, 성매매도 제공해왔다고 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성매매를 제공한다. 하지만 나는 동참하지 않는다. 제공만 할 뿐이다.
- ② 고객이 직접 요구하기 전까지는 모른척하지만, 직접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제공한다.
- ③ 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시도해본다.
- ④ 성매매를 제공한다. 같이 즐겨서라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낸다.

03 친구 A가 B를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 A는 지난번 B에게 마음을 고백했지만, B는 A를 그저 좋은 친구로 생각할 뿐 그 이상의 마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A는 상심해 있었지만, 이내 곧 자신의 진심을 B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그 날 이후 근 3개월 동안 매일 같이 B의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고, B가 집에 들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애정고백을 즐기치게 해오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A의 순수한 사랑과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B가 바보같다고 생각한다. A의 마음을 B에게 대신 전해줄까 하는 생각을 한다.
- ② A에게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B에게는 폭력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말해주고 포기시킨다.
- ③ A에게 그냥 B와 자버리라고 말해준다. 그러면 B의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조언해준다.
- ④ A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B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 그냥 A의 힘겨움을 들어준다.

04 교수임용 대상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실력있고, 인정받는 A 강사는 수업 중 여성주의라는 말이 나오자, "남자들은 여성주의에 고마워 해야 해. 예전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가르쳐가면서 즐거기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경험이 있어야 조금만 해줘도 흥분하지, 처녀들은 뭘 몰라서 힘들어. 여자들이 똑똑해져야 남자들이 편한거야. 너희 남학생들, 여성주의 말하고 다니는 여자들 뼈뺏하게 보지 말고, 오히려 그런 애들이

랑 연애해. 부담도 적잖아. 같이 잤다고 옛날처럼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업 이후 수업을 같이 들었던 B여학생이 이날 일에 문제 제기하는 대자보를 썼고, A 강사는 “남학생들이 여성주의에 대해 갖고 있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돌려서 표현한 것”이며, 오히려 자신은 “여성주의가 말하는 여성에 대한 순결 강요를 비판하고자 한 의도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문제를 제기했던 B는 과민한 반응으로, 힘없는 강사에 유망한 젊은 학자인 A를 매장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여학생의 문제제기가 단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학내에서 문제 의식이 공유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본다.
- ② 여학생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지만, 같이 문제제기하기엔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쓰인다.
- ③ 강사의 좋은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여학생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말할수이긴 하지만 큰 잘못은 아닌데, 여학생이 너무 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한다.

05 어찌하다보니, 새벽 2시경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려면 버스에서 내려서도 골목길을 약15분 넘게 걸어가야 합니다. 너무 늦은 까닭에 발걸음을 조금씩 옮기고 있는데, 앞에 어떤 여자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여성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갑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의심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한다.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나? 여자들은 피해의식이 지나친 것 같다.
- ② 앞에 가는 사람이 느끼고 있을 공포감을 알 것 같다. 빨리 지나치거나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간다면 그 사람의 공포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 ③ 그 사람이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겠지만, 나도 내 길을 가고 있는 건데 방법이 없지 않나?
- ④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지만, 왜 자꾸 돌아보는지 모르겠다.

06 A는 오랜만에 군대간 후배 B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B는 고참이 특하면 자신의 가슴을 꼬집으면서, 자신이 꼬집을 때마다 "I Love You"라고 외치라고 시킨다며, 그럴 때마다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너도 나중에 고참이 되면 똑같이 복수해주라고 한다.
- ② 남자들끼리 재미로 그러는건데 왜 화가 나지? 재미로 그냥 같이 즐기면 문제될 것 없는 것 같다.
- ③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것 같다. 그러나 고참에게 문제제기해도 후배만 힘들어 질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다. 공감해준다.
- ④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전체 분위기를 맞춰주는게 좋을 것 같다.

- 당신의 태도유형 확인은 다음 장에서 -

점수 카드

1. ① 3 ② 1 ③ 4 ④ 2
2. ① 2 ② 3 ③ 4 ④ 1
3. ① 2 ② 4 ③ 1 ④ 3
4. ① 4 ② 3 ③ 1 ④ 2
5. ① 2 ② 4 ③ 3 ④ 1
6. ① 2 ② 1 ③ 4 ④ 3

당신의 유형은?

1점 - 10점 : 혹시 성폭력이란 강간만을 뜻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성폭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다시 한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다양한 성폭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 주십시오. 그것이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감정과 목소리에 다시 한번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느낌들 또한 존중되어야 함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주십시오.

11점 - 20점 :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타인의 의사와 느낌을 존중하는데 아직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불편함이나 불쾌함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주의적인 경향이 큼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21점 - 24점 :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생각과 느낌들을 주변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스스로 실천하려고 하시는군요. 그러한 실천의 의미 있는 경험과 느낌들이 주변이들에게도 더욱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며, 멋진 당신에게 지지의 박수를 짹짹~!

어떻게 할까요?



피해자의 친구인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기조차 싫은 상황이지만, 어느날 당신의 친구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친구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친구의 고통과 분노를 함께 나누고, 친구의 치유를 위한 적절한 행동일 지에 대해 매우 어렵고 난감한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많은 경우,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나 말이 오히려 의도치 않게 더한 상처로 피해자인 친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치유를 돕고, 그 과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친구를 믿어주세요.

당신을 믿고 친구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묻거나 대신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친구가 자신을 의심한다 하더라도, 친구의 기억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친구의 말들이 몹시 극단적으로 들리더라도 친구를 믿어주세요. 성폭력 피해 생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꾸며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믿어주세요.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세요.

피해자가 원할 때는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존자의 경우는 당시에는 얘기하기를 원치 않으나 치유과정을 겪으면서 지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친구가 얘기를 꺼내는 시점이 되면 얘기를 중간에 끊거나 당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투입하여 흐름을 끊는 일 없이, 다만 피해의 고통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놓아주세요. 조용히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비난하지 마세요.

무슨 옷을 입었든, 전에 어떤 성경험이 있든, 밤늦게 혼자 걸었든, 술에 취했든, 가해자의 집에 함께 동행했든, 그 어떤 사람도 피해를 입을 이유는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 온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당신의 친구에게 그 상황을 유발하였다거나, 부주의했다거나,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등으로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비난하거나 혹은 이를 암시하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어쩌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왜곡된 편견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책임을 탓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하게 '네 탓이 아니다'고 말해주세요.

친구에게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문제를 보다 인간적으로 좋게 해결하기 위해'라는 생각에서, 피해자인 친구에게 가해자에 대한 이해를 내비치거나,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인 친구에게 또 다른 폭력입니다. 당신의 친구는 결코 원치 않았던 성적인 폭력으로 인해 힘들어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친구의 분노와 고통, 힘겨움을 함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그 어떤 의도나 맥락, 현재의 심정도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덜어줄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 스스로 가해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자꾸만 생긴다면, 들여다보아주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가져왔던 생각들에 어떠한 오해나 편견, 잘못된 없는지, 들여다보아주세요. 친구의 감정과 분노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다독여 주기 전에 항상 물어 봐 주세요.

몸을 다독여 주는 것이 -부드럽게 안아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편안함을 줄 거라고 추측하지 마세요.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피해 후 얼마 지나지 않

은 경우는 친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 의한 단순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분노나 고통, 공포를 느낄 때,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당신의 친구는 원치 않았던 성폭력으로, 분노하고 고통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이러한 자신의 감정으로 스스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친구인 당신이 힘을 주세요. 그러한 감정들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그 감정들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치유될 수 있음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당신 또한 그 감정을 함께 나누고자 함을 말해주세요.

친구에게 치유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친구는 자신의 치유에 대해 회의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힘든 감정과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그 일이 있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지에 대해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치유가 가능함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치유와 극복을 위한 힘이 친구에게 있음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힘을 믿어줄 때 힘든 기억으로부터의 극복과 치유가 보다 빨리 가능해짐을 말해주세요.

피해자에 대한 단일하고 고정된 상을 가지고, 친구의 감정과 태도를 바라보려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피해자를 대할 때 피해자에 대해 자신이 가져왔던 고정된 상을 통해 친구를 바라보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과 다를 때, 친구의 감정과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거나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친구는 원치 않은 피해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감정들을 스스로 극복해나갈 수 있는 무한한 힘과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친구가 가진 그

힘을 믿고, 그 힘 속에서 나타나는 친구의 다양한 노력과 감정들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믿고, 지지해주세요.

당신의 친구를 피해자로서만 대하려 하지 말아 주세요.

당신의 친구는 성폭력 피해자이기 전에,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의 친구를 성폭력 피해생존자라는 단일한 상을 통해서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그러한 마음은 친구에게 그대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신의 태도와 느낌은 당신의 친구가 자신의 피해에 대한 기억과 감정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경험하게 될 특별한 감정과 고통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용기들에 지지를 보내주면서, 동시에 당신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자로서만이 아니라, 더 많은 감정과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나갈 수 있는 친구임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친구의 현재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로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매우 많지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피해의 고통과 힘겨움을 가능한 최소화시키고 보다 빨리 극복하고 치유해나가기 위해서, 친구가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선택은 친구에게 맡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친구가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피해자의 상황을 여러분의 욕구와 판단대로 주도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더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피해자가 가장 원하고 편안하게 여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해 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결코 한가지 모범답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고 이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해자의 친구인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많은 남성분들에게 친구가 가해자인 상황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너무나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들은 갑작스럽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친구에 대한 애정과 이해 그리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필요성 속에서 무엇이 친구를 위한 행동일지 매우 혼란스럽고 난감한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친구와 당신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서, 매우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친구를 옹호하거나 감싸지 않는 것이 친구를 배신하거나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친구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당신이 느낄 가장 일차적인 감정과 혼란은 바로 위와 같은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친구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지를 보기 전에, 혹은 그러한 문제와 잘못을 보더라도, 친구를 옹호하거나 감싸안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고, 그 과정을 통해 가해를 한 친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고쳐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여러분이 함께 지켜보고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세요.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의지를 보일 때, 당신과 주변의 친구들이 오히려 가해자인 친구를 더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음을 말해주세요.

가해자들은 자신의 가해 사실을 직면해야 할 때, 주변의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거나 고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친구에게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때, 신뢰를 지켜나가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말해주세요. 신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친구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잘못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갖는 것,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임을 친구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사실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다.”는 말로 친구를 위로하고, 기운을 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일반적으로 친구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너는 사실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다”는 말로, 친구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일반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란 인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는 식의 통념을 강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자신은 소위 말해지는 강간범들과 다르며, 그에 비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죄질이 덜하다는 식의 생각을 강화시키고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피해의 심각성이란 당신과 가해자인 친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친구에게 말해주세요.

친구의 행동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당신이 판단하려 하지 말아주세요.

문제의 상황에서 친구의 행동이 성폭력이었는지 아닌지를 대신 판단하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력의 판단 여부는 가장 중요하게는 성폭력 피해 생존

자가 당신 친구의 행동에서 성적인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꼈는가 여부입니다. 당신이 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 주세요. 피해자가 친구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느꼈다면, 친구는 성폭력을 한 것입니다. 제 3자가 객관적일 수 있다는 말은 피해자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그 상황이 성폭력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를 가해자인 친구에게 말해주는 것은 피해 생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이 나뻐다”거나, “어쩌다 실수한 거다” “잘못 걸렸다”는 말로 친구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벼운 것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된 친구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친구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의 가해에 대해 문제를 지적 받게 될 경우,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누구나 그럴 수 있는 행동으로 해석하고, 주변의 이해를 받고 싶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친구들이 이를 지지하는 위와 같은 말들을 하게될 때, 가해자인 당신의 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보다는 어쩌다 한 실수 정도로 잘못을 최소화시키고, 정당화해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가해 행동이 반복되거나 강화되기도 합니다.

설령, 당신이 보기에 친구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가질 수 있는 행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더라도, 친구의 행동을 위와 같은 말로 지지하지 말아주세요. 그보다는 그러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우선 주목하고, 오히려 친구와 여러분의 평소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만한 짓을 했다”거나 혹은 “피해자에게 원래 문제가 있다”는 식의 말로 친구의 책임을 덜어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친구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분들이 성폭력을 한 친구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건, 원하지 않은 성적 폭력을 당해도 될만한 경우란 없습니다. 당신의 위와 같은 말은, 성폭력을 한 친구의 행

동만큼이나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게 폭력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신의 그러한 말이 친구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을 정당화하게 만들어줍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폭력 가해자인 당신의 친구는 우선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자신에게 보다 가까운 가해자의 감정과 상황에 감정을 이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친구가 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피해자의 심정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친구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상황보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을 피해자의 심정을 돌아봄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보다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인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인 친구를 대신해 변명해주려 하지 마세요

가해자의 주변인들 중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 변명해주거나, 가해자의 현재심정을 전달해주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하는 중재역할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러한 행동은, 가해자인 친구로 하여금 주변인들도 자신의 고통을 인정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사건을 인정하고 해결과정을 감수해야 하는 가해자의 위치보다는 그 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나름의 피해자' 로 스스로의 위치를 잡게 만듭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을 보지 못하거나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자신의 잘못들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친구를 도와주세요.

성폭력 가해자인 당신의 친구는 이번 일을 통해 이제까지 자신이 익숙하게 해왔던 생각이나 태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거나 낯설게 바라보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이러한 감정과 상황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 이라고 위로

해주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덮어줌으로써 또 다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친구가 평소 여성이나 성에 대해 가져왔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과 보다 배려있고 조화롭게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끔, 필요한 지원이나 자원들을 찾아보고 이를 제공해주려고 노력해주세요.

당신도 가해자인 친구의 행동에 같이 책임질 부분이 없는지 같이 고민해보세요

친구의 행동은 어느날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평소 가져왔던 생각과 습관들 속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성폭력 가해자인 친구의 의미 있는 주변인으로서 당신은, 친구의 행동이나 생각, 습관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여왔는지, 이를 지지하거나 공감하거나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버리지는 않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주세요. 당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의미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러한 자세는 친구에게도 이제까지 특별히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성찰과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남성도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피해자인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는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비록 많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남성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성폭력으로 인한 분노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남성인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으로 인해 어느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도와야 할지조차 모르는 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래와 같이 해주세요.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도와주세요.

성폭력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는 편견으로 인해, 당신은 남성인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주변인들이 과연 당신의 이야기를 믿어줄지 혼란스러워지고 그로 인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수치이지만, 남성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합니다. 더불어 성폭력임에도 성폭력으로 인지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남성들간의 성적 희롱들을 포함한다면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남성성과 연관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해주세요.

남성 피해자의 대부분이 성적으로 부당한 폭력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이전에, 남성인 자신이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으로 힘들어합니다. 피해사실 자체뿐 아니라 자신의 남성성이 훼손되고 무시되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스스로를 비하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가해자이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수치심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남성성이 훼손되었다는 느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 하는 것이 권력이나 힘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은 아닌지, 남성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여주세요.

당신은 자신이 이런 피해를 입게 된 것이 당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는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내가 남자답지 못해서', '내가 신체적으로 약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며 피해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치 않는 성적 폭력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동성간 성폭력과 동성애를 구별해주세요.

동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많은 피해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공포를 나타냅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동성애에 대한 공포나 혐오감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혹은 동성간 성폭력 피해 이후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성간 성폭력과 동성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성을 성적으로 가해했다고 해서 가해자가 동성애자인 것은 아닙니다. 남성간 성폭력 가해자들의 대다수가 이성애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불어 동성간 성폭력 피해로 인해 성 정체성이 바뀌는 것 또한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남성 피해자들 중에는,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이러한 감정이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도, 당신이 그 상황에서 불

쾌감을 느꼈다면, 결코 소소한 일이라 생각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남성 피해자들 중, 성폭력으로 인한 힘든 감정들을 “여자도 아닌데, 별일 아니다”는 식으로 외면하려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감정 외면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더 큰 후유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당신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그 감정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분노와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세요.

어떤 남성 피해자들은 ‘이런 일도 힘들어 해도 되는지’를 물어옵니다. 당신은 당연히 원치 않았던 성폭력 피해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가해자에 대한 극심한 원망이나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감정들로 공격적이 되거나, 혹은 분노에 차오르거나, 슬퍼질 때, 그 감정들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정하고 표현해주세요. 외면하고 억누르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표현함으로써 당신 안의 긍정적인 치유의 힘을 되찾아 갈 수 있게 됩니다.

당신에게 치유의 힘이 있음을 믿어주세요.

많은 피해자들이 이 힘든 감정과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더 지쳐가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결코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더욱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로 인한 힘든 감정과 고통들을 극복해 나갈 힘이 당신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 믿고, 그 힘이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할 때, 그 힘은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강하게, 당신을 치유하게 해줄 것입니다.

가해자인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의도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순간 당신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마음과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가해자가 되버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할 지에 대해 심한 감정적 혼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최선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주세요.

그 상황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당신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성폭력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그 상황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대신 판단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폭력의 판단여부는 가장 중요하게는 성폭력 피해자가 당신의 행동에서 성적인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꼈는가 여부입니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당신의 판단 또한 객관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당신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느꼈다면 우선 그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주세요.

당시에 당신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많은 가해자들이 당시에 자신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신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상황에서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가 당신이 실제적으로 가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잘못을 최소화 시키려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가해자들 중에는 “어쩌다 실수한 거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의 심각성을 최소화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말은 당신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피해자가 현재 겪어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기 보다는, 여전히 당신을 변명하려고만 한다고 보여지게 만듦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더 분노하게 하거나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의도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많은 가해자들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이란 행위의 의도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가 성적 불쾌감이나 폭력적인 느낌을 받았는가 여부입니다. 당신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나 주변인들로 하여금, 당신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떠나, 당신이 상대에게 성적 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었고, 이 사실을 당신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많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래 성격침이 많거나 피해자가 그런 행동을 하게끔 유도했다는 식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그 어떤 다른 상황과 경험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누구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의 현재 힘든 감정 이전에,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우선 이 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상황과 감정들에 빠져들기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 받고, 힘들어 하고 있을 피해자의 심정은 돌아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고 힘들어 하고 있을지를 돌아봐주세요. 그럼으로써 당신의 행동을 보다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피해자의 분노와 요구를 수용해주세요.

가해자들 중에 피해자의 분노나 요구가 지나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피해의 심각성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자신이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분노나 요구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도 폭력적인 느낌의 정도는 다양하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폭력적인 느낌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가이며, 이는 그 어느 누가 판단할 수도 없는,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정도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당신에게 표현하는 분노나 요구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한 수준의 정도인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기 보다는, 당신이 피해자가 그만큼 힘들어 하고 고통스러워 할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주세요.

당신 자신과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길은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피해자에게 피해경험이 없던 것으로 되지 않는 것처럼, 가해경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책임지는 과정을 감수해내는 것만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인 당신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의 평소 생각이나 태도들을 돌아봐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상대에게 향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또 다시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당신은 이제까지 당신이 익숙하게 해왔던 생각이나 태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거나 낯설게 바라보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평소 당신의 여성에 대한 생각과 실제 태도는 어떤 것이었는지, 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나 태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솔직하게 질문하고 성찰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또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매우 필요한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자원들을 찾아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아가 이러한 당신의 노력은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되 줄 것입니다.

이럴 땐
이런걸
해봐요!

친구들이 성에 대해 많이 아는척 한다구요?

그럴 때는 -

- 01 친구 말의 내용을 상상하기 보다는 그 말의 진실성 여부에 호기심 가지기.
- 02 친구 말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확인해 보기
- 도움 사이트 : 아해청소년성문화센터(<http://aha.ymca.or.kr/>)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http://www.ausung.net/>) 등
- 03 확인한 정확한 정보를 친구들에게 말해주기

TV를 보는데, 여성에 대한 관점에 문제가 있다구요?

그럴 때는 -

- 01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야기하며 그 사람은 어땠는지 물어보기.
- 02 그 프로그램이 왜, 얼마나 당신을 화나게 했는지 동네방네 떠들며 소문내고 다니기
- 03 해당 방송사 프로그램 게시판에 들어가 제작진에게 하고 싶은 말 쓰고 나오기
- 04 방송위원회 사이버민원실(<http://www.kbc.or.kr/>)에 신고하기

직장 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생겼다구요?

그럴 때는 -

- 01 내가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단, 성희롱 피해 당사자가 불편해 하면 자제하기. 나의 기분보다 피해 당사자의 기분과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기)

02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기

03 성희롱을 당한 동료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 사내 고충처리기관에 상담 및 신고하기.
- 노동부 전국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상담실
(1544-5050, 핸드폰 통화 X, <http://www.molab.go.kr>)
-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
(1544-9995, <http://www.moge.go.kr>)

04 회사 내에 성희롱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기. 회사에 이를 건의하기.

사이버 상에서 언어적 성폭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 -

01 내가 본 내용들을 갈무리 혹은 화면캡처 해두기

02 항의 및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03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캡처한 증거자료 보내 주면서 대처방안 알려주기

- 해당 정보서비스업체에 피해사실과 가해자 아이디를 알려주고 도움 요청
- 게시물일 경우 게시물 삭제 요청
- 커뮤니티 안에서 가해자의 가해 행위에 대한 토론 제안하기
- 사이버범죄수사대(<http://www.cybercrime.go.kr/>)에 신고할 수 있음

이런면 이렇게 해봐요!

지하철에서 성추행 현장을 목격하셨다구요?

그럴 때는 -

- 01 평소에 차량번호와 문 위치번호 확인해두기
- 02 신고하기
 - 112에 전화 신고하기
 - 각 역무실에 전화 신고하기
 - 지하철범죄수사대(02-2281-0898)에 신고하기
- 03 가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 04 증인 되주기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구요?

그럴 때는 -

- 01 위기상황(피해발생후 48h~72h 이내)인지 확인하고, 위기상황일 경우 피해 당시 증거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씻으면 안됨) 산부인과 가도록 하기
(*산부인과에 가기 전 상담소에 전화상담을 주시면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2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하여 지원 받기
 - 전화상담 : 02-338-5891~2)
 - E-mail 상담 : ksvrc@chol.com
- 03 본 책자의 '어떻게 할까요' 꼼꼼히 읽고 실천하기

남성들에 의한 성폭력 근절 활동 외국 웹 사이트

Men Can Stop Rape (Men's Rape Prevention Project)

<http://www.mencanstoprape.org>

제목 그대로, '남성이 성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폭력피해여성을 지원하고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뜻을 함께 하는 남성들의 그룹.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남성교육을 위한 워크샵, 트레이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White Ribbon Campaign

<http://www.whiteribbon.com>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가슴에 하얀 리본을 달으로써 표현하는 운동.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남성들에 의한 여성폭력 추방 운동 사이트.

xy: men, masculinities and gender politics.

<http://www.xyonline.net>

남성과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태도들이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 자신에게도 해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저널지의 웹 사이트.

Men's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Ending Gender Based Violence

<http://www.un-instraw.org/mensroles/>

Men's Violence Prevention (Todd Denny)


<http://www.olywa.net/tdenny/>

Men Ending Violence

<http://www.vahealth.org/civp/sexualviolence/menendingviolence/>


No More: Men's Outreach For Rape Education

<http://www.nomoreape.org/>

발행일 2003년 12월
발행인 이미경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여성부 
만든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캠페인 기획단
삽화 김지윤 (lemon)
디자인 일탈기획(02-2275-8447)
주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 본 책자의 저작권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있습니다.
본 책자는 2003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의 후원하에 제작되었습니다.



 **사민** **한국민속박물관**